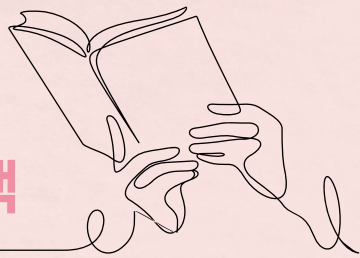


봄날, 마음에 햇살처럼 내려앉는 책



새로운 시작과 설렘의 계절인 봄.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이 좋은 날, 잠시 멈춰 서서 책 한 권과 함께 마음을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 이번호에는 봄날의 햇살처럼 잔잔하고 따뜻하게 스며드는 여섯 권의 책을 소개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봄바람처럼 가벼워지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만나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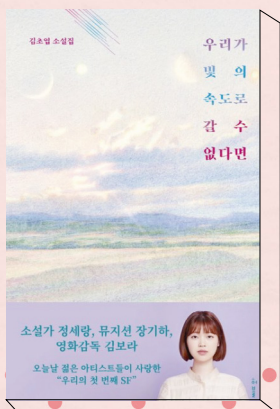
정리. 편집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지은이: 김수현, 펴낸 곳: 클레이하우스, 발행: 2022년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돈 많고 잘나가는 타인의 SNS를 훑어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라고 응원한다.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라고 말한다. 봄처럼 가볍고 솔직하게, 그러나 위로와 다짐을 담아내는 에세이. 따뜻한 날씨에 벤치에 앉아 한 장씩 넘기기 좋은 책이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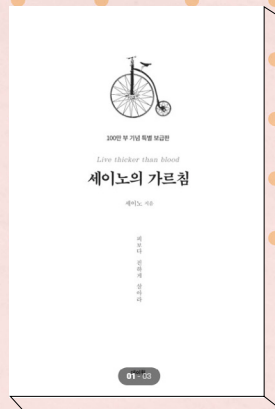
지은이: 김초엽, 펴낸 곳: 허블, 발행: 2019년

무엇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차별, 모순으로 가득 찬 세계를 분투하며 살아가게 하는가! 바이오센서를 만드는 과학도에서 이제는 소설을 쓰는 작가 김초엽.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상상의 세계를 특유의 분위기로 손에 잡힐 듯 그려내며, 정상과 비정상, 성공과 실패,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끊임없이 질문해온 그의 첫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다. 봄바람처럼 부드럽고도 서늘한 감성이 담긴 한국 SF 단편집. 관계, 상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담백하게 그려져 있다.

세이노의 가르침(보급판)

지은이: 세이노, 펴낸 곳: 데이원, 발행: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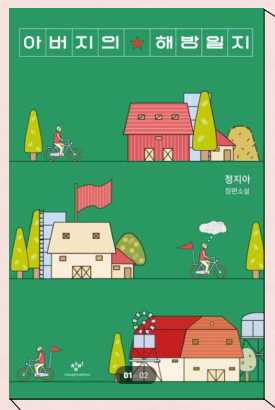
이 책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다. 재테크 기법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이 삶의 우열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파한다. 대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 삶의 자세부터 바로잡고, '피보다 진하게 살라' 한다. 세이노 사전에서 '노력'이란,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치열하게 열심히 해내는 것이다. 하기 싫었던 일조차 좋아질 만큼! 성공한 자산가 세이노가 전하는 인생과 재테크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으로,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봄에 읽기 좋은 자기계발서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지은이: 정지아, 펴낸 곳: 창비, 발행: 2022년

소설은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 이후 3일간의 시간만을 현재적 배경으로 다루지만, 장례식장에서 얹히고설킨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해방 이후 70년 현대사의 질곡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웅장한 스케일과 함께 손을 놓을 수 없는 몰입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은 정지아만이 가능한 서사적 역량이다. 그러나 이 소설의 진정한 묘미는 어쩌면 '가벼움'에 있다. "아버지가 죽었다. (...) 이런 쟁쟁"으로 시작하는 첫 챕터에서 독자들은 감을 잡겠지만 이 책은 진중한 주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소설이 아니다.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기에 좋은 작품으로, 봄날의 독서로 추천한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지은이: 황보름, 펴낸 곳: 클레이하우스, 발행: 2022년

서울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동네의 후미진 골목길에 자리잡은 평범한 동네 서점, 휴남동 서점. 주인 영주를 비롯해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을 안식처로 삼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무언가 잃어버린 채 텅 빈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배려와 친절,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끼리의 우정과 느슨한 연대,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에 지금 당신을 초대한다. 책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가득해 봄의 설렘과 따뜻함을 느끼기에 좋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지은이: 이치조 미사키, 펴낸 곳: 모모, 발행: 2021년

밤에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리셋되는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앓는 소녀 히노 마오리와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 가미야 도루의 풋풋하고 애뜻한 사랑 이야기다. 선행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매우 수준 높은 청춘 소설로 탄생시켰다는 극찬을 받으며 제26회 전격소설대상 '미디어워크스문고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간질간질한 청춘의 로맨스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끌고 가, 깁깁하고 엄격한 심사위원 모두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다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남긴 소설이기도 하다. 사랑과 추억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책은 봄의 설렘과 감성을 느끼기에 좋다.

